

민생물가 특별관리  
관계장관 TF  
(공개, ④번 안건)

#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

2026. 5. 7.

관 세 청

## 순 서

I . 수입통관 점검 현황 .....	1
II . 추진 실적 .....	3
III . 향후 계획 .....	5

## I. 수입통관 점검 현황

중동전쟁 특별관리품목 중 수급 차질(우려)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통관 현황을 점검하고,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

※ [통계 기준] '26.3~4월, 배럴(원유), 톤,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(%)

- 에너지 : (원유) 비중동지역 확대 / (LNG·LPG) 말련·미국 물량 증가
  - (원유) 중동산 수입 축소(2,529만 배럴↓, 8.5%p↓)로 전체 수입량 감소  
(전년동기 1.5억배럴→'26.3~4월 1.3억배럴 13.9%↓), 비중동산 수입\* 증가(430만 배럴 ↑, 8.5%p↑)  
\* 비중동산 5,338만배럴 : 에콰도르 245만배럴(240.6%↑), 콩고 279만배럴(193.1%↑) 등 증가
  - (배럴당 평균 단가) 약 92불로 전년 동기(79불) 대비 16.2% 증가
  - (LNG·LPG) 원유와 같이 중동산 수입 축소로 LNG, LPG부탄 수입량\* 감소, 단 LNG의 경우 말련산 수입 증가(153만톤, 38.8%↑)  
\* LNG : 전년동기 763만톤→'26.3~4월 666만톤(12.7%↓) / LPG부탄 : 전년동기 29만톤→'26.3~4월 15만톤(47.8%↓)
  - (톤당 평균 단가) LNG는 533.2불(전년 동기 602.4불 대비 11.5%↓), LPG 부탄은 809불(전년 동기 583.8불 대비 38.6%↑)

### <주요 에너지품목의 수입량 변화 추이>

- ▶ 중동산비중 : 원유 59%(8.5%p↓), LNG 3.8%(12.9%p↓), LPG부탄 0%(30.4%p↓), LPG프로판 0%(4.7%p↓)
- ▶ 수입물량 : 원유 1.3억배럴(13.9%↓), LNG 666만톤(12.7%↓), LPG부탄 15만톤(47.8%↓), LPG프로판 83만톤(12.5%↑)
- ▶ 주요국가 반입량 : 원유에콰도르 245만배럴(240.6%↑), LNG말련 153만톤(38.8%↑), LPG프로판미국 75만톤(22.7%↑)

### 업계의 건의사항

- (원유) ① 원유는 수입규모가 커서 FTA 특혜 적용의 영향이 큰데, 캐나다 원유 생산자들이 FTA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꺼려 한-캐 FTA 적용이 어려움
- ② 기상악화로 원유 하선을 중단했다가 작업 재개 과정에서 원유의 추가 하선 희망 시 수입 적재화물 목록 변경이 필요하며, 이는 원칙상 행정제재 대상
- (LNG) ▲LNG선 검색대상 지정되면 입항·하역 지연됨, ▲입항 후 하역 중 기상악화 등으로 다른 정박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항내 이동신고 의무 발생

- 핵심 산업원료 : (나프타) 공급망\* 다변화, (헬륨) 미국 반입량 증가
  - (나프타) 전체 수입량은 감소(전년동기 417만톤→'26.3~4월 312만톤, 25.2%↓), 미국(26만톤), 그리스(27만톤), 인도(35만톤)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추세
  - \* 비중 : 전년동기 중동산 59.5%, 비중동산 40.5% → '26.3~4월 중동산 30%, 비중동산 70%

- **(헬륨\*)** 수입량은 큰 변동없음(전년동기 0.03만톤 → '26.3~4월 0.025만톤, 16.3% ↓), 미국산 반입량 증가(0.01만톤, 49.9% ↑), 카타르 반입량 감소(0.01만톤, 45.5% ↓)  
\* 천연가스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추출,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초저온 냉각원료로 사용
- **(톤당 평균 단가)** 나프타는 749.4불(전년 동기 662.6불 대비 13.1% ↑), 헬륨은 106,698.4불(전년 동기 104,952.3불 대비 1.7% ↑)로 모두 상승

#### 업계의 건의사항

- (나프타) 싱가포르 등에서 여러 원산지의 나프타를 혼합하여 완성한 나프타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정확한 원산지 신고방법 문의

- **요소(요소수) :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, 비료용 브루나이, 촉매제 중국 물량 증가**
  - **(비료용)** 전체 수입량은 감소(전년동기 5.5만톤 → '26.3~4월 5.1만톤, 6.3% ↓)하나, 중동산 수입\* 없이 브루나이산(3.5만톤, 신규) 등 수입물량으로 대체  
\* 비중 : 전년동기 중동산 81.3%, 비중동산 18.7% → '26.3~4월 중동산 0%, 비중동산 100%
  - **(촉매제)** 전체 수입량은 증가(전년동기 5.3만톤 → '26.3~4월 5.5만톤, 5.2% ↑), 중동 비중 감소(0.2만톤, 3.6%), 중국산이 2.6만톤 차지(전년동기 1.9만톤 대비 34.8% ↑)
  - **(톤당 평균 단가)** 비료용의 경우 721.6불(전년 동기 467.3불 대비 54.4% ↑), 촉매제는 604.6불(전년 동기 466.6불 대비 29.6% ↑)로 모두 상승

#### 업계의 건의사항

- 미-이란 전쟁에 따라 요소수 제조원료 가격이 폭등(약 30%이상) →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부비축물품 계약업체의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·은닉 등 우범성 존재

- **석유화학제품 : 가격 변동폭에 따라 수입량 변화**
  - 기초유분으로 사용하는 품목 중 평균단가 변동(10%이내)이 크지 않은 벤젠, LLDPE 및 LDPE\*의 수입량이 증가  
\* LLDPE : 선형 저밀도폴리에틸렌(농업용필름 등 제조) / LDPE : 저밀도폴리에틸렌(비닐봉지 등 제조)

품목	수입량			톤당 평균 단가		
	전년동기	'26.3~4월	증감율(%)	전년동기	'26.3~4월	증감율(%)
벤젠	1.2만톤	3.2만톤	174.8%	943.3불	996.8불	5.7%
LLDPE	0.5만톤	0.8만톤	57.4%	1,311불	1,393.6불	6.3%
LDPE	1.2만톤	1.4만톤	20.3%	2,014.1불	1,840.5불	△8.6%

※ [기타품목] 비료, 고무 등에 활용되는 유황 수입량 급감(전년동기 1.7만톤 → '26.3~4월 0.1만톤, 92.2% ↓)

#### 업계의 건의사항

- 민생밀집 품목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국내 수급이 어려운 상황, 이를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국내 제조기업들의 경우 복잡한 수입요건·통관 절차로 어려움 발생

## II. 추진실적

□ 「중동전쟁 비상대응 T/F」 운영으로 긴급 수요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함께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·물류 긴급 지원 추진

○ 원자재·중간재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수입단계 공급망 병목 해소

- **(신속 통관)** 긴급수요품목은 기존보다 빠른 입항·하역 전 통관 조치를 통해 국내 도착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되도록 지원

- **(공급 지원)** 매점매석 금지, 긴급수급조정품목\*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\*\*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제한 품목은 통관심사를 강화

\* '물가안정법'(제6조)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지정(산업부 등)

\*\* ①자동차 휘발유, 경유, 등유(3.13~5.12), ②요소수·요소(3.27~5.31), ③나프타(3.27~8.26), ④에틸렌, 프로필렌, 부타디엔, 벤젠, 톨루엔, 자일렌 등 기초유분 7개 품목(4.15.~6.30.)

- **(정보 제공)** 원유, 나프타 등 7개 에너지 품목 수입단가를 매주 분석하고 가격 급등 시 상세 정보\*를 관계부처에 즉시 공유

\* 급등한 품목의 수입단가, 수입량, 수입국 등 정보를 재경부와 산업부에 제공

### 성과

- ▶ 민-관 공조를 통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**2.79만톤**(3.30.), 정유사 대여(SWAP제도) 정부 비축유 **109.7만톤**(3.31.~4.24., 22건) **신속 통관**
- ▶ 원유, 나프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**53건의 조기 경보**를 산업부 등 **8개 부처**에 전파하고, 나프타 등 수출입데이터를 관계부처에 정기(일주 단위) 제공

○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 유동성 확대

- **(수입 지원)** 중동지역 수출 후 회항하여 재반입된 화물(유턴화물)의 통관유형 정정\*(환적→수입)에 따른 과태료 부과 최소화, 검사 선별 제외

\* 회항후 수출 재개 예상, '환적'화물 신고 → 수출 불투명에 따라 '수입'화물 정정

- **(수출 지원)** 수출신고 후 미선적한 화물의 적재기간(30일)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, 수출신고 정정·취하에 대해 <sup>한시</sup>오류점수 부과 면제

※ 미선적 화물 적재기간 연장 **7,792건**, 수출신고 정정·취하 **1,028건** 혜택 부여

- **(운임 특례)**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대상으로 발생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추진\*

\* 재경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령 개정(5월초), 세부지침 마련·시행 예정

- **(세정 지원)** 중동지역 수입기업 대상 납기연장, 분할납부 등 지원

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납기연장, 분할납부, 담보제공 생략 등 <b>31건, 7,241억 원</b></li> <li>▶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운임 특례 시행 → 약 <b>1,123억원 상당</b> 경제적 지원효과(4월~5월, 추산) 예상</li> </ul>
----	---

#### ○ 주요 연료 자원의 대체 공급망 발굴 및 지원

- **(공급 다변화)**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,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중동산 대체 가능 품목\*을 적극 발굴하고 FTA 활용절차를 개선

\* 캐나다<sup>세계 매장량 3위, 생산량 4위</sup> 앨버타산 원유 : FTA활용경험 부족한 원유 생산자 대신 공신력 있는 주 정부가 원산지입증서류 발급하는 특례 도입(4.20. 공동성명서)

※ [특이동향] 중동전쟁 발발 후 3월 호주산 원유 170만 배럴(전년동기 대비 45.4%↑), 말레이시아산 원유 65만 배럴 수입(전년동기 대비 59.4%↑) 증가

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캐나다 원유 공급자를 대신하여 앨버타 주정부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한-캐 FTA 특혜세율 적용(3→0%)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합의 → 연 최대 <b>3,300만 배럴 상당</b> 확보 가능(기존 480만 배럴의 약 7배↑)</li> </ul>
----	---

- **(신고 간소화)** 여러 국가에서 제조된 나프타를 혼합하여 거래되는 상업용 나프타의 원산지를 일괄신고 가능토록 신고 간소화\*(4.21.~)

\* 국가별 원산지 비중을 파악하기가 곤란함에 따라, 기타국(ZZ)으로 수입신고 허용

#### ○ 유가 상승 등 위기상황을 악용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

- **(불공정행위 엄단)**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면세유 불법 유출·유통,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부당 이득 편취 목적의 불법행위 엄단

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면세유선박 공급용 중유 <b>1만ℓ(3.21.)</b>, 경유 <b>35.6만ℓ(3.26.)</b> 적발</li> <li>▶ 요소수제조원료 <b>1,400톤</b>을 비축하지 않고 1,217톤을 유통한 업체 적발 (관세청·조달청 합동점검 실시 → 조달청이 경찰청에 정식 수사의뢰)</li> </ul>
----	--

### Ⅲ. 향후계획

#### ☐ (신속통관) 중동전쟁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급 관리 필요 품목의 수입통관 및 하역절차를 간소화

- (수입절차)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 가능\*토록 개선

\* 수입자가 ①요건확인 기관에 제출한 '요건허가신청서' 사본, ②요건확인 서류를 사후에 제출한다는 '사후제출 약속서'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 절차 생략

- (하역절차) 원유·천연가스(LNG) 운송선의 입항·하역지연으로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선박검색 지정 제외,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\* 면제

\* 하역작업 중 기상악화 등으로 정박장소 이동 시 신고의무가 발생

- (원유하선특례) 더 많은 원유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도 과태료 면제

#### ☐ (공급망 다변화 지속)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절차상 규제를 혁신하고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

- (규제 혁신)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특례 사례와 같이 FTA특례 지원이 가능한 제도·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수입절차 상 애로해소

- (말련산 원유) 타 국가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장기간 소요\*되는 말련산 원유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추진

\* '수입신고-원산지증명서 발급' 소요시간 : 말련 184일 > 호주 57일 > 필리핀 3일

- (지원 품목 확대) 나프타 대체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\*에 대하여 수입지원 방안 검토

\* (업계 의견) 가스 콘덴세이트(HS: 2709)는 비축의무가 있어 수입주체가 제한적, 유사한 성상의 천연가스액(HS: 2710)은 비축의무 없어 비축시설 없는 석화업체도 원료확보 용이

▶ 가스 콘덴세이트 : 천연가스 채취 중 압력과 온도 저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응축되는 원유

▶ NGL(천연가스액) : 천연가스 처리과정(분류)을 통해 인위적으로 분리해 낸 액상천연가스 혼합물